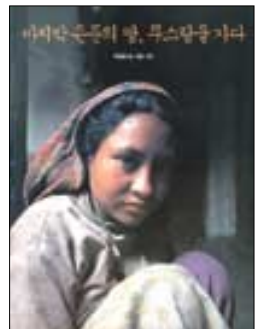


# 은둔의 땅 무스탕에 서다



**마지막 은둔의 땅 무스탕을 가다**  
백경훈 지음  
호미|1만8000원

히말라야 설산의 신비로움이 지배하는 네팔 깊숙이 숨겨진 은둔의 땅 '무스탕'. 네팔 중북부와 티베트 남쪽과 국경을 마주하는 무스탕은 14세기 나라의 기틀을 세운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1760년 네팔을 통일한 고르카왕조에 자치권을 빼앗긴 옛 왕국이다. 하지만 왕의 존재는 이후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세습되어 왔으며, 현재 22대 국왕인 지그미 비스타왕이 왕궁에서 지내며 그곳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티베트계인 무스탕은 라마불교의 원형을 간직할 곳이기도 하다.

시인 백경훈씨와 사진작가 이경씨가 '금단의 땅' 무스탕을 20일동안 탐사한 뒤 <마지막 은둔의 땅, 무스탕을 가다>를 발간했다.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외국인의 방문이 금지됐던 무스탕은 지금도 2인 이상이 최소 10일 이상을 기본으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1인당 하루 70달러씩 고액의 허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목이 거의 없고 불모의 땅인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발 2800미터에서 4500미터 사이를 넘나드는 '낙타등' 지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소모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원인 2명이 한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마부 2명, 요리사 2명, 포터 2명 등 총 7명의 스태프가 필요하다.

## 라마불교 원형 그대로 간직한 히말라야에 묻혀있는 불교 소왕국 원시의 빛깔 신비로운 풍광 생생히

이 책은 트래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무스탕의 자연과 협곡등을 통과하고, 여러차례의 아찔한 위기를 넘기는 아찔하고 경이로운 여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소개된 트래킹 코스는 이제까지 한국인들이 간직이 없는 '죽음의 코스'를 선택해 태고적 모습을 간직한 무스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히말라야 설산을 굽이굽이 돌 때마다 새로운 절경을 그려내는 끝도 없이 아득한 풍경, 원시의 빛깔로 더없이 신비롭게 빛나는 자연의 모습, 마음이 있는 곳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성한 깃발 등, 척박한 땅과 거센바람에 맞서 고평(사찰)에 의지하며 사는 종교적이고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 등, 무스탕의 살아 숨쉬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진다.

33개 부락에 주민 6000여명으로 이루어진 무스탕인들은 돌과 흙으로 지은 정형화된 사각형의 집에서 티베트 불교 문화와 복식을 지키며 산다.

또 한집안의 장남과 결혼한 여자가 그 집안의 형제들과도 부부의 연을 맺는 일처다부제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무스탕 주민들은 척박한 땅에 보리, 메밀, 완두콩, 감자 같은 밭작물을 키우며 사는데 저수지가 없어서 경작지마다 계곡의 물을 수로로 끌어와 농사를 짓는다. 일부 유목민들은 양, 염소, 야크등을 키우고 그들에게서 우유, 고기, 연료

(야크똥)를 얻는다. 이동수단은 말이나 노새가 이용된다. 백경훈 씨는 "무스탕에서 보낸 스무날의 낮과 밤은 크나큰 행복이고 기회였다"며 "험벗은 땅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활뛸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내일의 옷'을 걸쳐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담긴 수행시



**색즉시공 공즉시색**  
최혜영의 무한심성에너지개발원  
7000원

대구 무한심성에너지개발원 회원들이 그동안 불교 공부물 하면서 틈틈이 시로 승화시킨 수행시집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발간했다. 창조와 소멸이 내면에 있음을 믿고 자연의 이치를 알아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 수행시, 지난해 10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한국관 이벤트홀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소개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무한심성에너지개발원들이 지은 '시공간의 초월' '공한 눈' '기도' '남산의 머리없는 부처님' '에누리 없는 공' '마음중심' '천지가 길이다' '죽어야 사는 세상' 등 110여편이 실려있다.

또 부록으로 나온 <FM center>에는 수행시에 대한 설명, 수행시 짓기의 원리, 수행시 짓기의 과정, 수행시 짓기의 효과등과 수행시 5편이 한글과 영문으로 소개돼 있다.

## 네터즘 강추

### 이 세상이 사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 우리교육, 이태수 지음  
이 그림책은 아파트로 숲을 이룬 어느 도심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집 뒷마루 창가에 등지를 튼 황조롱이가 이야기를 다룬다. 풀이나 나무라고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뜬 주고 옮겨다 심은 것밖에 없는 아파트숲에서 황조롱이는 새끼를 치고 길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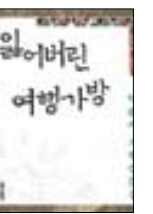


사람만 살겠다고 만든 아파트숲 환경에 어쩔사리 자리를 얻어서 사는 '사람 아닌 목숨', 사람과 똑같이 '자연 가운데 하나'인 목숨이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자연과 사람의 목숨, 사람과 자연 살터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사람만 살면 되지는 않지만 사람이 자연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면 좋은 세상인지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다. (된장, aladdin.co.kr)

### 낮선 길에서 만난 박완서의 인생

**잃어버린 가방** 실천문학사, 박완서 지음  
한국 문학의 기둥 박완서가 소설이 아닌 기행산문집 <잃어버린 가방>을 선보였다.



<잃어버린 가방>에 수록된 글은 열두편. 기행지로 국내는 남도, 하회마을, 섬진강, 오대산이 있고 국외로는 바티칸, 상해, 티베트, 카트만두 등이다.

<잃어버린 가방>은 삶이 앞장 서 있다. 몸과 마음이 여행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노작가, 아니 박완서라는 인간의 진실함이 묻어났다. 놀랍다. 앞서 말했듯 책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다. 사실에 담긴 진실이 놀랍다. 묵직하고 진지한, 가슴을 세기는 삶의 언어들이 꼬리를 무는 <잃어버린 가방>. 글자락이 유달리 길게 느껴진다. (정근, yes24.com)

###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현대인의 자화상

**달려라, 아비** 창작과비평사, 김애란 지음



책을 읽을수록 그녀의 기발한 상상력에 웃고, 공감하며, 감동받고 책 속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총 9편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하나하나가 정말 보물과 같았다. 만삭인 어머니를 버려둔 채 나가버린 아버지,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아버지, 어느 날 불쑥 나타나 하루종일 TV에만 매달려 있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로 인해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또한 한공간에 거주하면서도 한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문밖을 나오는 방식으로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사는 다섯 아가씨를 통해 개인주의와 획일화 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기도 한다. (달아이, yahoo.com/ysp/libro)

## 책속의 밑줄긋기

○... '인정한다'는 의미는 내담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감이다. 불신이나 조롱같은 부정적 반응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내담자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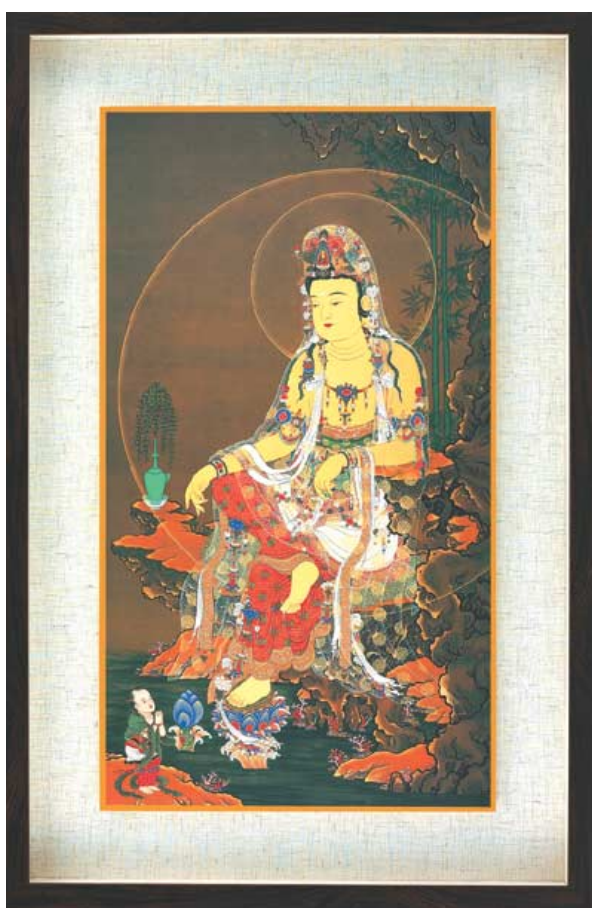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를 인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은 곧바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내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표시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더니 오히려 내담자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후로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라도 내담자의 마음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타로의 지혜) 165쪽, 조앤나 워터스 지음, 슈리 크리에이티브스 아쉬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 수월관음도

불자 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높이 88cm, 폭58cm

## 가정과 사업장의 변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 만사형통의 영험!

#### 점안불공과축원불공마치고 출시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밝게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과 고뇌를 단념시키고, 재난을 없애며, 화를미리라고, 모든일을 성취시켜 주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 전승공예 대전(불화)대통령상,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수월관음도는 100%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 와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의 흘러도 변색되지 않게 특별제작했으며 영험의 고려 불화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하나라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가정과 사업장에 변영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최고급 2단 들출표구 제작과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표구 뒷면에는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와 후손에게 가보로 물려주는 소장인관도 들어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리며 삼배한 후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전화(02)735-6923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 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 관세음영험福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계획했던일 착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은동인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안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손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

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패턴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은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명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옴마니 반매홈 벨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게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홈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룩되는 진리의 뜻을 담은 벨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홈자동 벨트는 벨트에서 원외선과 멜로네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벨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